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024년 제2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4월 11일(목)
14:30~16:00
전쟁기념관 워리어 라운지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2024년 제2회 KWO 나지포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2024년 제2회 KWO 나지포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일시 : 2024년 4월 11일(목) 14:3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록	14:30~14:40	등록 및 명찰 배부
개회식	14:40~14:50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기념촬영
주제발표	14:50~15:10	【사회】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발표】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 안호영(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미대사)
종합토론	15:10~15:40	【토론】 정승조(전 합참의장) 【토론】 신각수(전 외교통상부 차관) 【토론】 길정우(전 국회의원) 【토론】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토론】 김유석(전쟁기념관 학예연구팀장)
다과	15:40~16:00	리셉션
폐회	16:00	폐회 선언

〈목 차〉

【주제발표】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 안호영 ·····7

【종합토론】

정승조 ·····19

신각수 ·····20

길정우 ·····25

천영우 ·····29

김유석 ·····31

【주제발표】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안 호 영

(경남대 석좌교수, 전 주미대사)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전 주미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안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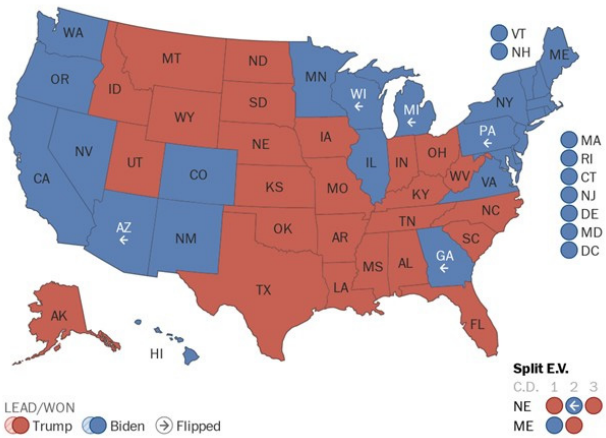
차례

- I. 트럼프 당선 가능성
- 1. 현 시점의 전망
- 2. 제안: 판단중지

- II.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 1. 큰 그림
- 2. 주요 이슈
- 3. 우리의 대응

I. 트럼프 당선 가능성

- 1. 현 시점의 전망
- 가. 여론 조사
- 바이든: 트럼프= 45.5%: 47.2% (트럼프가 1.7% 리드)
- Real Clear Politics 의 3.20. 조사



Sources: Edison Research, Associated Press

- 나. 경합주
- 미시간, 펜실바니아(동률), 위스콘신 (바이든이 1% 리드)/ 바이든이 상승세
- 죠지아, 아리조나, 네바다, 노스 캐롤로이나/ 트럼프가 리드, 그러나 죠지아를 제외 하곤 바이든이 상승세
- Bloomberg 의 3.27. 조사
- 바이든이 미시간,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3개 주를 지키면 270:268 로 승리



- 2. 제안: 판단 중지
- 가. 역사적 경험
- 1992년 대선
- 2016년 대선
-



- 나. 고려할 요소
- 트럼프 후보의 사법 위험: 입막음 돈 재판 4/15 시작
- 낙태문제의 영향: 12개 주에서 주민 제안 움직임
- 역 “Shy Trumper” 현상: 예) 버몬트 주 경선 여론조사는 트럼프 30% 승리
- 전직 각료들의 이반
- 양당 후보 정치 모금의 격차/ 바이든:트럼프=7천1백만 불: 3천3백만 불 (FEC 3.20. 신고 기준)
- 제 3후보의 영향: 특히 Robert Kennedy, Jr.

II.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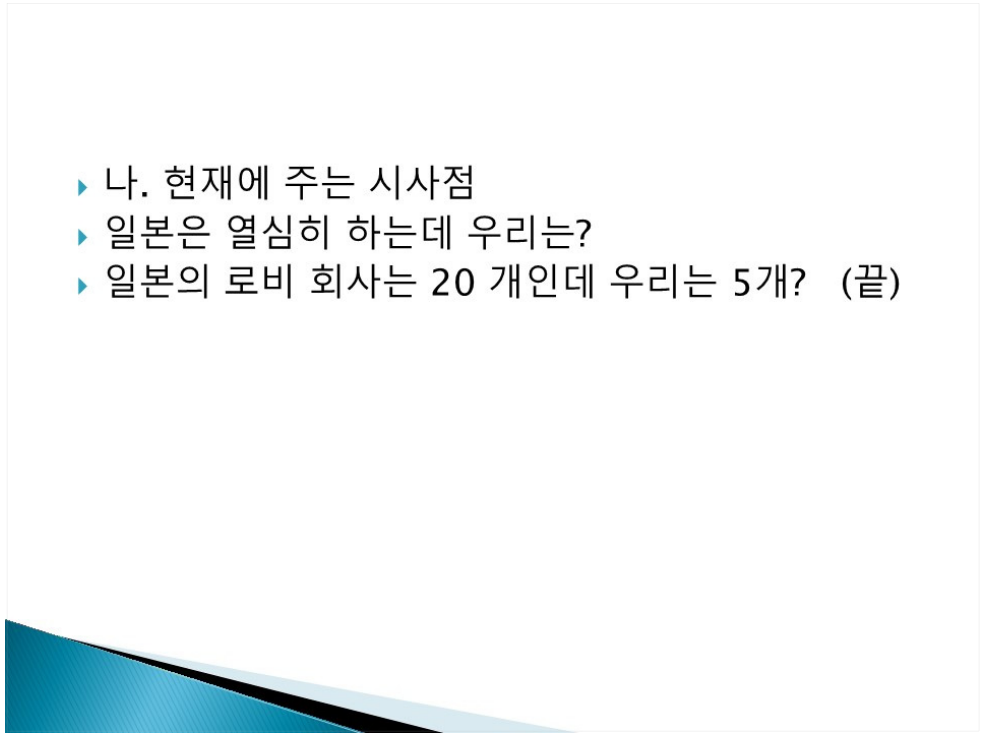
- 1. 큰 그림
- 가.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 나. 원인과 결과의 문제



- 2. 주요 이슈
- 가. 우크라이나 전쟁
- 대만 해협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
-
- 나. 동북아 안보 협력
- 쿼드, 오커스, 한.미.일 협력
-

- 다. 한.미 안보 협력
- 주한 미군 규모
- 분담금 협정
- 우리의 의제 제안: 방산, 원자력 등
-
- 라. 북한 핵 문제
- Chris Miller 의 입장
- Robert O'Brien 의 입장

- 3. 우리의 대응은?
- 가. 2016년의 경험
- 백악관: Reince Priebus, Mike Flynn (Matt Pottinger, H.R. McMaster, John Bolton)
- 안보 각료들: NSC Advisor, Tillerson, Mattis
- 경제 각료들: Robert Lighthizer, Perdue, Wilbur Ross
-


나. 현재에 주는 시사점
일본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로비 회사는 20 개인데 우리는 5개? (끝)

【종합토론】

정승조

신각수

길정우

천영우

김유석

【토론문】

정 승 조(전 합참의장)

○ America First는 피할 수 없는 추세
-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임

○ 민주당과 공화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노력 불가피
- 행정부와 여당 :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야당 : 민간 주도적으로 관리(단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개인)
- 한국이 Trump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곤란

※정부와 민간의 노력 Colaboration

○ 미국은 대통령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가?
- 직업공무원들의 영향력

※예 : 軍

○ Trump가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에는 불리하기만 한 것인가?
- 아베 신조 前일본 총리의 사례
- 윤석열 대통령과 Trump의 긴밀한 관계 기대 가능

○ Trump가 동맹국의 역할 확대 요구시
- 방위비 분담? : SMA의 정신에 맞게 협의 가능
- 주한미군 철수·축소? : 핵무기 등 자강능력 보강의 기회로 활용

【토론문】

신 각 수(전 외교통상부 차관)

1. 트럼프 당선 가능성

○ **미국 대선은 금년 최대의 지정학적 이벤트**(Economist)

-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 트럼프 후보의 압도적 예비경선 승리: 공화당의 트럼프화

- 1888년 낙선 후 1892년 전임자(벤자민 해리슨)를 꺾고 재당선된 Cleveland 대통령(민) 이래 132년 만에 재선실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

○ **최근 미국 대선 여론조사**

- 전국 3.21 Activote 47.3%(바이든) vs. 52.7%(트럼프) 5.4% 트럼프 리드

  3.18 Economist 43%(바이든) vs. 42%(트럼프) 1% 바이든 리드

- Swing states(77표): 전체 선거인단 538표의 약 1/7

주명	리드후보	주요 이슈	2020년 바이든리드
미시간(15표)	트럼프 3.6%	중동/녹색에너지	2.8%
아리조사(11표)	트럼프 5.5%	이민문제	0.3%
위스콘신(10표)	트럼프 1.0%	낙태 권리	0.7%
펜실베니아(19표)	바이든 0.8%	경제 회생	1.2%
조지아(16표)	트럼프 6.5%	선거개입	0.3%
네바다(6표)	트럼프 7.7%	실업, 경제	2.4%

- 전체적으로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유리하지만, 근소한 격차로 11월 대선까지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

○ **선거의 주요변수**

1)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4개 사건 91개 혐의**

2) **건강**: 고령으로 바이든 81세, 트럼프 77세나,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

3) **경제**: 미국 경제의 성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좋은데 미국 국민의 평가는 인색(perception gap). 인플레 억제가 초점인데, 대선 일자까지 체감 물가가 떨어질지 미지수

4) **낙태**: 여성 표 획득에 중요한 변수로 민주당에 유리

5) **이민 문제**: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

6) independent **후보(케네디)**: swing state에서 중요 변수

○ **Swing State에서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비에서 '비정상과 정상'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면 바이든 대통령에 유리할 가능성**

2. 트럼프 2.0과 트럼프 1.0의 차이

○ **트럼프 스타일의 주요 특징**

- 감정적, 규율이 안 잡히고, 산만한 성격의 대통령으로 준비가 덜 되었던 1기에 비해 2기에는 트럼프 본연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강화된 트럼프 1기(on steroids)**

- 1기에서 트럼프의 일탈을 억제하였던 행정부·공화당 내부에서의 저항을 완전 제거하고 트럼프 충성주의자로 채울 전망
- Project 2025, Agenda 47 등을 통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완성도 높은 준비 완료

○ **가치보다는 이익 위주의 접근**

-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 부여와 유지 의지 부재
- 국제공공재 부담 회피로 '킨들버거 함정' 발생 가능성

3.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특징

○ **1기 때 경험하였지만 트럼프는 신고립주의의 상징적 인물**

- A unilateral, aloof and aggressive US로 변화할 가능성

-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큰 변환을 가져올 전망
  *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끈 미국의 고립 자초로 국제질서의 혼돈 증가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군의 국제질서 도전 심화
  * 글로벌 사우스의 글로벌 이스트 경사 심화 초래
- 독자행동에 의한 일방주의로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동 증가
- '미국 우선주의(MAGA)'로 동맹을 경시하며 미국 이익만을 추구

○ **다자주의·가치외교를 경시하고 거래적 외교 중시**
- 민주주의, 인권, 법치, 환경, 노동 등 가치를 중시한 바이든 외교에서 이탈
- 대외관계에 있어 경제 이익을 우선하는 성향

○ **권위주의 지도자와 가깝고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을 평가하는 경향**
- 오랜 동맹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독재자와의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김정은, 푸틴과의 브로맨스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

○ **강한 수사와 긴장을 불사하지만, 일관된 정책과 명확한 전략은 없어서 혼돈을 초래하기 쉬운 경향**
- 2017-9년 북한을 다룰 때도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즉흥적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 지시

4. 국제안보에의 영향

○ **NATO에 부정적 영향**
- 동맹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여 동맹에 대한 비용 분담과 역할 분담을 강요
  * 존 볼턴, 트럼프가 재선되었을 경우 나토에서 철군하였을 것이라고 경고
  * 임기 말 2020년 주독 미군의 3분의 1가량인 1만2000명을 일방적 감축·재배치 통보
- 최근 유럽의 NATO 내 역할 증대 노력: Trump-proof NATO 지향
  * 탈냉전 기간 유럽 국가들의 방위노력 해태로 미국 없이는 안보에 지장

○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리한 조기 종전 우려**
-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에 유리한 전쟁 종결 압박 우려
  * 우크라이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 이슈

- 유럽 지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 불가피
-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태로 전쟁 종결·휴전이 되면 중국·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 예상

○ **중동에는 적극 관여 예상**

- 1기 때 유일하게 실적을 올린 지역: 아브라함 합의
- 팔레스타인 문제에 일정한 진전 없이는 중동 평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
- 이란에 대한 군사타격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한미·미일 동맹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유럽과는 다른 양상**

-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대중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위분담에서도 유럽보다 양호하다는 점에서 한미·미일 동맹에는 유럽과 다른 접근 예상
-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경우 동맹 자체를 해치는 행위는 자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년 중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체제의 정착 노력이 중요

○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 부정으로 중국의 대만공격 가능성 증대**

- 전략적 명료성을 종종 내비쳐 대중 억지를 강화하였던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대중경제관계에 비중을 둠으로써 대만에 대한 억지력 약화 우려

5. 국제경제 영향

○ **보호무역 강화**

- 관세 부과로 보호무역 강화(보편관세 10%, 대중관세 60%)
  * 미국 내 물가 압력에 비추어 약속대로 실행할지는 미지수
-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 흑자국가에 대한 노골적 압력 증가 전망

○ **기후변화 정책 후퇴 전망**

- 쉐일가스 개발 촉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기 자동차 장려책 후퇴 예상

○ IPEF **탈퇴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무역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직접 공세적으로 다루어갈 것으로 예상
- 양자·소다자 차원의 FTA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성

○ **경제안보 면에서는 바이든 정책 계승 예상**

-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차원의 대중 압력 유지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 통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간의 상충 증가
- 보조금을 통한 미국 내 reshoring, 외국투자 유치 지속 전망
- 중요 산업분야에 대한 산업정책도 강화될 전망

6.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안보 차원에서 대비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에서 규모 축소 가능성
- 주한미군 감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대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대만 사태와의 연계
- NCG 등 확장억지 강화를 위한 최근 진전의 후퇴 우려
- 방위비 분담 증가와 한국군의 역내 역할 증대 요청 가능성

○ **북핵문제에서의 대북 타협 우려 증대**

- 1기 경험에 비추어 2기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교섭 재개 가능성
- 교섭에서 중간단계로서 사실상 핵군축으로 흐를 위험성: 북한의 일부 핵무기 잔존과 제재 해제 교환으로 사실상 핵무장국가 인정
- 잠재핵능력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할 필요

○ **한미 FTA 수정 제기 가능성**

-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의 강제 축소를 도모할 우려
-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취소 가능성에 대비 필요

【토론문】

길 정 우(전 국회의원)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임.

○ 미국식 민주주의와 국내정치가 지금처럼 예측난망인 경우가 없었음.

-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 이는 미국이란 국가,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 현 단계 한국이 안보관련하여 거의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한미동맹의 미래와도 무관치 않아

○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대외정책에 관해 많은 외국언론들이 분석기사들을 내놓고 있음.

- 우리 언론은 예외라고 할는지, 아니면 당장 우리의 국내정치 문제 등으로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할는지
- 그저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규모 축소 내지 철수 문제 등과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향방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한미동맹 문제 정도를 이따금 언급할 뿐

○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데...

-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달라질 정책이나 입장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 IRA, Chips Act에 더해 최근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 반대입장 표명 등은 단순히 선거 앞둔 자세라고만 볼 수 없어
- 중국압박 정책의 수위 및 향방과 우리의 대중국 입장 정리를 압박할 것; 대만의 유사시 상황 포함해(이는 우리도 차분하게 전략적 선택에 관해 고민해야 할 사안)
- 트럼프 재등장시 한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입장 정리

해야

- 한미동맹을 포함한 양자관계에서 벌어질 상황과 미국의 대중국, 러시아 관계 등 여타 국가들과 지역(NATO, QUAD 등), 그리고 IPEF 등 경제, 통상문제 등과 주요 전략자산과 생산원료 등의 공급망Supply Chain 조정 등 주요 사안들과 관련한 입장 전환시 미칠 영향까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 무엇보다 한반도의 장래와 한국의 선택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

- 북한 핵문제를 다뤄왔던 지난 30여년간의 미국의 입장과 전략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지도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
- 같은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역시 지난 트럼프 정부이전까지만 해도 명확한 입장 정리에 실패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젠 정색하고 미정부가 중국압박책으로 일관한다 해도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1980년대 미국의 대일본 경제압박 효과와는 달리)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한마디로 “때는 늦으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통치 하의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사태 등 새로운 도전(포괄적인 중동정책) 등까지 감안할 때 미국 정부(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의 위기관리능력에대한신뢰는약화될수밖에없어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전략적 도전에 임하는 우리스스로의 결의와준비가매우중요하다는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 결국 미국대선의 추이 및 결과에 주목하면서도 우리의생존전략모색하는계기로삼아야; 이때 스스로 묻고 또 답을 찾아야 할 과제들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 무엇보다 북한이란 변수를 대입해 놓고 미정부의 한반도정책과 한미동맹의 미래 생각해보아야
- 북한의 군사력이 차원 다르게 증강된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근거없는 폄하나 과소평가 혹은 반대로 과대평가도 금물) 우리의 생존전략 모색해야
- 자체 방위력에 대한 엄중한 평가는 반드시 따라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실효성 까지를 포함해 (자체 핵무장 등) 과거엔상상못하던문제까지제기하고답을찾아야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 군사방위력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가자사태 관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 및 미정부와 충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계(미국내정치 탓에 지원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현실과 결정적 시점과 시기 상실 가능성 있다는 사실) 등을 참고하고 독자적 방위력, 자생력 키우는 미래전략 세워야
- 현재 한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작업은 필수적이나 평가 결과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 갖고 있어
- 다른 한편,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 가능할까 의문이지만, 언제든 어떤상황에서도남북한간에대화창구는열려있어야마땅하고, 또 대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어느 정부든 가볍게 생각하면 안돼
- 일본정부의 대북 접촉과 대화 가능성 늘 열려있어; 트럼프 재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관계 변화는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장감 높이며, 다양한 시나리오 상정하고 대책 마련해 나가야...
- 워싱턴 미일정상회담의 합의 및 결의에 주목하면서, 일본과달리한국내미국편향에대한애매한국내분위기간과할수없어; 적극적인 대미로비활동의 한계
- 자구책 마련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안들 가운데 하나는 Cyber Security; 북한의 사이버 전쟁과 전투 양상에 대비책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지속해야;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도 이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이행해야

○ 망가져 가는 미국내 정치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미국 의회인사들 대상으로(공화, 민주당 및 상하원 양원 대상) 외교활동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국회의원들 역시 이런 노력에 동참해야(소위 의원외교 활동)

- 특히 최근 대만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 방문했던 미국 의원들 명단을 참고
- 주요 싱크탱크, 주요 언론 대상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이를 위해 '아시아의미래와한반도'라는담론개진하고답을제시할수있어야
- 한마디로 국제정세 변화와 주변국 관계의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많이 떨어져 있다." + "전략적 사고 및 훈련이 부족하다."

- 한국 대기업들의 정보수집 및 분석 작업과 대미 로비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 필요할 듯; 지난 1980년대초 (한국의 시장개방 압박했던) 소위 Super 301조 발동 당시 한국의 대미 로비활동 처럼; 한국의 각 기업과 대사관이 고용하고retain 있는 미국의 대형 law firm, PR firm 등의 역량과 활동 점검 필요해(과거엔 공관내 정보 및 분석 수렴 창구 가동해)

○ 어떤 경우든 “하늘은(국제사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명심하면서 자구책 찾고 상시 준비체제 갖춰야

○ 바이든 재선이든 트럼프 복귀든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토론문】

천 영 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1.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 사법 리스크가 핵심 변수
- 대선 전 조지아주 선거개입 사건(RICO case)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 가능성 희박 (공화당 지지자의 1/4이 표심을 바꾸겠다는 여론조사 결과)

2.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징

○ 예측 불가능성
○ 관료조직이나 참모의 역할보다 개인의 편견, 순간적 충동, 공명심이 지배
- 미 북정상회담 수락 결정 과정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
-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Mattis 국방장관 등 참모들 배제

○ 동맹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몰이해
- 동맹을 미군의 주둔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으로 인식
- 미군의 주둔비용을 받아내는 것을 동맹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간주

○ 무역적자를 악으로 인식
- 기업의 적자와 동일시

3.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 방위비 분담 확대 압력

- 트럼프 1기에서 연간 50억불로 인상 요구
-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다시 압박 예상
- 한국 내에서는 안보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리스크가 협상 지배
- 한국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2.7%)은 다른 동맹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활용

○ 주한미군 철수

- 트럼프의 체면을 살릴 수준의 방위비 분담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 단행 가능성
-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인색한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
- 미군을 본토에 주둔하는 것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고, 중국 견제에도 유리하다는 논리 활용
- 철수 결단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동력 약화

-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 견제와 북핵 위협 봉쇄의 레버리지로서 유용성 설득
- 각급의 실무 협의체로 제도화

○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 미 국 양측이 수용 가능한 딜은 하노이정상회담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
- 그러나 언론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트럼프가 유혹을 느낄 위험성

【토론문】

김 유 석(전쟁기념관 학예연구팀장)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 대외정책’의 재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임.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악화하여 가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틀 속에서 군사 및 안보 접근, ‘국력 낭비 최소화’ 및 ‘거래 중심적 동맹관계의 강화’를 통해 좀 더 공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임

*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협상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로 보낸 비축 물품 복구 비용을 유럽에 청구할 것.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 필요

○ 안보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군사적 관점’으로 한정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방위비 분담금’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

1. 비핵화와 군축 분야

○ 북한 핵 및 투발 능력 구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북핵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무장 이전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이 나갔음.

○ 북한의 뒷배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추가 되면서 북한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짐. 북한은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등 유리한 대외 여건 조성 전략을 추진.

○ 미국 일각에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북-미 군축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보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북-미 협상 가능성

* 크리스토퍼 밀러(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정부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를 집필)
"제재 완화(reducing)를 바탕으로 북핵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보력과 외교력이다."

○ 치적을 남기려는 트럼프가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오면 '이전보다 낮은 조건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 있음. 북한은 이런 기회를 살려 정체된 비핵화 회담을 유리한 여건에서 재개할 수 있음.
* 협상의 하나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직후 취임을 앞두고 핵실험을 서둘러 유리한 협상 여건 조성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은 핵 동결 및 핵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 트럼프는 중국 대응 전력 재배치 차원에서 일부 수용가능성 높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중국을 유일한 도전 세력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북 핵 문제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슈는 대화로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핵 3축(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에 집중

2. 한국의 핵 자강 및 확장억제 분야

○ 지금까지 핵확산 방지 의지가 강해 남한의 핵 자강은 달성하기 어려움
○ 2016년 4월3일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이 큰 문제로, 한국·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핵

무장 용인론을 번복함. 핵확산 방지라는 대전제를 깨기는 쉽지 않지만, 일부 참모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함.

*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한국 핵무장 등)를 살펴볼 수 있을 것"

○ 확장억제

- 바이든의 성과인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NCG)'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확장억제 관련 안전장치 확보 및 제도화 추진 위해 "핵협의그룹 프레임워크 합의"(2024.2.12.)
  -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 선정, 핵협의그룹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양국 국방부가 협의체 운영을 주도
  -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월 한 설정하고, 미국 전략사령부 작전계획에 핵무기가 포함된 것처럼, 한국군은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명문화 추진으로 작용 기대.

3.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 분야

○ 주한미군 관련 트럼프 주변인들의 말

- "미국 국방계획은 중국, 특히 대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

  "주한미군이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도 있음"
-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지상 방어에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

○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제기될 것임

○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보다 상대적으로 주한미군 역할을 축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음. "한미 관계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처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맡아오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좀 더 떠맡도록 요구

○ "잠정적" 안전장치 : 2024년 국방수권법(NDAA)

-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 유지, 한국과의 확장억지 관련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지휘체계와 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도 포함
-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4. 방위비 분담금 분야

○ 2017~21년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주일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월 10일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이들을 공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 발언. 2월 1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 NATO 회원국 스스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병력과 국방비 증액, 방위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방위산업 육성 전략 추진 노력 보임

* Tim Kaine(D-Va.)-Marco Rubio(R-Fla) NATO 관련 법안: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상원 의원 3분의 2가 탈퇴에 투표하도록 요구.

→ 트럼프의 공언에 대해 NATO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반응 고려 시 한국에 유사하게 요구 가능

○ 한국에 방위비 등 역할 분담 증대 요구

- 자국 우선주의로 철저한 계산과 요구 속성에 따라 '거래 중심적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공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 전략자산 전개나 사드 운용비용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보공약과 돈을 연결 지어 NATO 회원국을 저격하는 것처럼 한국에 압박 가능성 높음
-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와 미국의 재래식전력 증강에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능력을 연계하여 교환 요구 가능

* 크리스토퍼 밀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NATO의 방위산업 기반이 대규모 전쟁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다.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파트너가 필요하고, 미국을 지원할 파트너는 현재 한국밖에 없다. 방위산업 협력과 방위비 분담도 동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5. 대책

○ 한미가치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 필요

○ 현실화한 북핵 문제 고려 시 한·미군은 재래식전력과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절차를 숙달 필요

○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방 태세 강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모색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성향, 거래적 리더십 스타일 등을 고려한 상호이익 맞교환 형식의 '통 큰 협상'을 준비 필요

2024년 제2회 KWO 나지포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한미동맹에 제기할 도전

총 괄	김낙진(학예부장)
기 획	김유석(학예연구팀장)
진 행	김홍희(학예연구사)
편집·교정	김수빈(학예연구사)
발 행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전쟁기념사업회에 있고,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